

게리 예이츠 박사(Dr. Gary Yates), 성서 12장, 세션 22, 미가서 6:8 및 나훔

© 2024 게리 예이츠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12장에 대한 강의 시리즈의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강의 22, 미가 6:8 및 나훔입니다.

우리는 12장 연구에서 전환점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앗수르 위기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선지자들을 살펴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12장에 나오는 첫 번째 선지자들의 물결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아모스와 호세아와 요나를 포함한 선지자들입니다. 당신은 남쪽 왕국의 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시리아 사람들의 손에 닥칠 심판에 대해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음 세기에 임박한 바벨론의 위기에 대해 백성을 준비시키고 경고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단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유다, 나훔, 오바댜 이외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미가서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미가서 6장 8절에 매우 유명한 구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늙은이여, 그는 선한 것이 무엇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나는 우리가 선지자들을 통해 가르쳤다는 사실을 알고 밤에 잠을 잘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고, 이 구절을 최소한 잠깐이라도 살펴보지 않았습니.

내 생각에 그것은 선지자들과 정의 전반에 걸쳐 강조되고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미가서 세 번째 부분인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시 심판과 구원의 패턴입니다. 미가서

6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요구하시는지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 뒤에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의를 행하고, 친절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여러분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십시오. 따라오는 현실은 유다가 이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는 7장에서 의인이 땅에서 끊어졌고 사람 중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피를 기다리며 서로 그물로 서로를 사냥합니다. 그러므로 공의를 행하며 자비를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기대하신 것입니다.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것이 유다가 행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심판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상태는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을 정도입니다. 미가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비추어 다가올 심판에 대해 통곡하고 애통해합니다.

거기에 남은 선택은 그것뿐이다. 그러나 미가서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행동하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자,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중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법정으로 데려가실 언약 소송입니다. 선지자는 검사와 같습니다.

당신은 미가서 6장에서 전개된 이 전체 이미지와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산 앞에서 당신의 화환과 소송과 소송을 변론하실 것입니다. 언덕들이 당신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산들, 주님의 비난, 땅의 영원한 기초를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언약을 세울 때 증인으로 있던 산과 하늘과 땅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백성들에 대한 그분의 신실하심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요? 내가 어떻게 당신을 지치게 만들었나요? 대답해 주시거나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자신의 신실하심을 그들에게 보여 주신 방법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내가 너를 종살이의 집에서 구속하였느니라.

내가 네 앞에 맡긴 언약의 책임을 내가 지키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무엇을 기대하시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 번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의 예술성은 제가 간단히 집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갈 것이며,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배해야 하겠느냐고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대답 중 하나는, 음, 우리가 단순히 제의와 의례적 책임을 이행한다면 우리는 의무를 다한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그것이 부적절한 대답임을 보여주기 위해 바칠 수 있는 제물과 희생의 수를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수사적으로 그는 가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일련의 제물을 나열하여 가능한 가장 귀중한 제물과 희생조차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주요 요구 사항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일 년 된 송아지를 병행하여 나아가야 합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수사학적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이 실제로 드릴 수 없는 제사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열왕기상 8장에서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왕이 드릴 수 있는 제사 유형입니다. 웅장하고 값비싼 것,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후의 제사, 최후의 희생으로 내 죄를 인하여 내 장자를 드릴 것이지요,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 것입니까? 이교도들이 실제로 말하는 그런 귀중한 희생을 내가 바친다면 어떨까요? 내가 내 자녀를 바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것 중 어느 것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궁극적으로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은 중요하지만 정의로운 생활 방식, 언약의 신실함,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생활 방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걷는다는 개념이 이것의 마지막에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겸손한 자세를 취한다면, 그들을 인도하고 인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항상 상기시켜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장담할 수 없으며 언약의 신실함을 항상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자신보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우선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따라서 정의의 중요성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이러한 추진 정신은 미가의 메시지의 일부입니다. 저는 선지자를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할 때 목회자로서 특정한 정치 정책에 대해 설교하는 것이 종종 제 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고 우리 교회에 상기시키는 것이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돕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실천하기 위해 꼭 정치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마틴 루터 킹이나 윌리엄 윌버포스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단지 사람들을 올바른 방법으로 대하고 내가 사역할 기회가 있는 내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이러한 정의의 생활방식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한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우리 앞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정의에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단지 우리에게만 집중하는 삶을 살 것인가? 종종 복음주의 교회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부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개별 회중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하도록 부르시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소외된

소수자들인가? 주택 단지에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미국의 국경과 국경을 넘어 확장되는 사역인가? 우리 도시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이 적응하는 데 교육이나 자원,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많은 불법 이민자 어린이들에 대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단순히 이에 대한 공화당의 답변이나 이에 대한 민주당의 답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구약의 윤리를 통해 우리의 정신이 알려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외의 부유하고 풍요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도시에 살면서 우리가 가진 자원이 없는 사람들을 돌볼 것입니까? 구약성서의 정의의 정신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마땅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며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싶다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구약 토라의 윤리 및 가르침과 함께 어떻게 통합할지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데이비드 베이커(David Baker)는 꽉 주먹(Tight Fist) 또는 구약 율법의 손을 벌리고 부와 빈곤(Open Hands, Wealth and Poverty in Old Testament Law)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훌륭한 연구인 그 특정 책에서 베이커는 구약의 율법이 그 맥락과 고대 근동 환경에서 가난하고 과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의 필요성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고아들. 구약의 율법에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독특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세의 율법이나 모세의 율법이 단순히 고대 근동의 또 다른 법률에 불과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법전을 처음 접하고 모세 율법을 읽을 때, 와, 모세 율법이 다른 법전과 똑같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모자이크 율법의 처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것은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Baker가 보여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과 정의에 대한 관심의 정신을 반영하는 다른 법률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 독특한 관점이 법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모세 율법의 특수성을 반영한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이를 엄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가 이야기하는 몇 가지 사항만 언급하겠습니다. 그는 첫째로, 성경에 나오는 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벌은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인도적이며, 다른 법에서 볼 수 있는 절단, 구타, 사망을 결코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며 처벌은 도둑이나 피해자의 지위나 재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조상의 땅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며 그들 각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됩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와 중세 시리아 법은 조상의 땅이 왕에게 속한다고 주장합니다.

구약의 법에서 동산 노예 제도는 비이스라엘인에게만 제한되어 있으며, 이 법은 노예들에게 상당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도망한 노예에게는 망명을 제공하고 노예에게는 휴가를 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고대 근동 법률에서 노예는 재산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는 노예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에 중점을 둡니다.

반노예에 관한 구약의 율법에는 다른 독특한 특징도 있습니다. 임시 노예에게는 복무가 끝나면 가족의 영구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제한된 기간 동안의 담보 노동은 빚을 갚는 또 다른 방법이었으며 구약의 무이자 대출 정책 때문에 다른 문화권 중 일부보다는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능했습니다.

다른 문화권의 높은 이자율은 근로자가 이자 지불만 감당하고 평생 속박 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성서 법은 또한 첩에게 아내나 딸의 권리 중 일부를 부여하는 보호 조치를 제공하며, 첩에 대한 친절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첩을 대하는 실용적인 방식과 대조됩니다. 구약성경에서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자 왕의 책임으로 간주됩니다.

그것은 고대 근동 지역 전체에 걸쳐 사실이지만, 구약의 법은 특히 과부와 고아가 법정이나 재정 거래에서 학대나 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적인 측면입니다. 성경의 법은 소송과 관련하여 독특한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성의 원칙은 다른 곳에서도 가정되었을 수 있지만 구약성서에는 명시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개만 더 추가하면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산물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은 그것이 모든 사람과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구약의 특징입니다.

이는 안식년의 법칙, 삼년제 십일조, 이삭줍기의 원칙에 구체적인 방식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삭줍기에 관한 성경의 법칙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지역에서는 농업상의 이유로 다음과 같은 일이 이루어졌으며, 성전이나 궁전에 십일조를 바쳤으나 이러한 관행 중 어느 것도 사회 복지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 조건에 관한 구약의 율법은 다른 법률 모음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의 개념은 고대 근동 지역의 독특한 개념으로, 특히 정기적인 휴식과 오락이 모든 사람의 기본 권리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을 이해하고 싶다면 구약성경을 보면서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토라의 메시지가 어떻게 일치하고 그것을 강조하는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것이 우리 삶에 있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보는 방식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미가서에서 눈을 돌려 나훔의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니네베 사람들에게 폭력과 심판과 멸망을 가져오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다른 그림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나훔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훔은 요나서의 예언적 대응 인물이다.

요나서에서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시지만, 15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폭력과 하나님께서 인간의 폭력을 사용하시는 방식은 최근 이 책에 대한 논평자들을

특히 괴롭혔던 것입니다. 나는 이 책이 우리가 고민해야 할 책이고 거기에 있는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RA 메이슨이라는 한 작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훔서는 정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두 종교 공동체에 오히려 치욕이 된다는 사실을 대중 주석에서 인정할 용기가 우리 중 누구라도 있겠습니까? 그렇게 달갑지 않은 부분이 있나요? 나는 그가 책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훔서의 문학적 예술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적어도 이 책은 나쁜 책이지만 잘 쓰여졌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이 책에 대해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기를 원한다.

우리는 거기에 존재하는 폭력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몇 가지 윤리적 질문과 딜레마, 그리고 신과 폭력, 전쟁, 그리고 제기되어야 할 이 모든 것들에 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이 책을 읽고, 타락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정의를 집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때때로 인간 군대의 폭력을 사용하신다는 걱정스러운 메시지가 있다고 믿는 본문의 충실한 독자로서 이 책에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비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일을 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그 방법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선하고 공평하고 공의로운 방법으로 이 일을 행하실 것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자행된 불의와 폭력을 궁극적으로 바로잡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20세기는 인류가 살아온 가장 폭력적인 세기였다는 사실도요.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니네베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것이 인간의 원수를 갚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종종 인간 군대를 사용하셨지만, 자신의 백성을 처벌하기 위해 바빌론 사람들과 아시리아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은 궁극적으로 앗수르인들을 징벌하기 위해 바벨론인들을 사용하실 것이며, 바벨론인들을

징벌하기 위해 페르시아인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들을 사용하시지만 그들이 저지르는 악과는 분리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하여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에 가담하거나 가담하지 않으시고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믿습니다. 이제 나훔이 니느웨의 멸망에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적들에 대한 유다 백성의 민족주의적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끔 열방과 선지자에 대한 예언을 읽으면 홈커밍 주간에 있었던 고등학교 집회가 생각납니다. 나가기 때문에 군대를 채찍질하고, 적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책들은 이들 국가에 대한 증오, 분노 또는 보복을 표현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바로잡으시고 궁극적으로 그분의 백성을 구출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훔서의 폭력적인 하나님이나 나훔서의 폭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폭력과 불의, 그리고 앗수르와 같은 사악한 제국들이 행하는 일들을 결코 다루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더 큰 딜레마와 더 큰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도덕적 괴물이십니다. 나훔서에 나오는 심판의 엄중함은 니느웨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의 엄중함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배경과 배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 책은 하나님의 백성이 적들에게 복수, 폭력, 정의를 집행하는 합리화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주의와 이해를 염두에 두고, 이 책이 어려운 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표현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완전한 의의 하나님이시니 앗수르 군대의 폭력과

압제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 왜 개별 국가들을 심판하시는지는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일의 시기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책의 지속적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니느웨 사람들의 악행과 압제, 특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한 모든 악행을 인하여 심판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모든 적들에 대해 이런 종류의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선지자들에 나오는 열방에 대한 예언은 단순한 역사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을 심판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제 우리는 나훔이 요나서의 예언적 대응 인물이라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나 또는 요나와 나훔에 대해 몇 가지 간략한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8세기 775~760년에 요나는 니느웨로 갑니다. 그가 그곳에서 전파하자 니느웨는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라아(ra'ah)와 악(evil)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시는 일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큰 악을 행하였으므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하신다. 그 큰 악이 그 앞에 나타났느니라. 심판관이신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나라들도 하나님께 책임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3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나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거나 그들의 악, 그들의 라아에서 돌이키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니네베 사람들이 이 일이 있는 지 얼마 되지 않아 폭력적이고 제국주의적이며 군사적 지배적인 방식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 시대에 어떤 회개가 이루어졌든 그것은 연못 위에 파문이 일어난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까? 우리는

모른다. 745년까지 티글랏-빌레셀은 신아시리아 제국을 세웠고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 및 다른 나라들에 큰 폭력을 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악을 회개합니다. 그들은 매우 빨리 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612년에 니스웨 성이 심판으로 무너지고 멸망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악, 그들의 라아(ra'ah)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거슬러 악을 꾀한 한 사람이 네게서 나왔으니 그는 무익한 모사니라.

그러므로 요나서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가져온 일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그곳으로 돌아갈 때 니스웨가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가 다시 효력을 발휘하게 될 일이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일입니다. 판단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나훔 3장 마지막 절에서는 네 상처가 쉬지 않고 네 상처가 중중하니 니스웨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 대한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이 너를 향해 손뼉을 칠 것이다. 왜냐하면 너의 끊임없는 라아, 너의 끊임없는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요나서에 나타난 악을 회개하여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빨리 그 악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해 150년을 기다리셨다는 사실 자체가 그분의 지속적인 자비와 동정심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그 악은 시정되어야 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관참은. 이제 요나서와 나훔서의 또 다른 구체적인 비교는 이 두 선지자 모두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암시하고 언급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니스웨 로 갈까? 주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뜻을 돌이켜 악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관참은. 그 고백의 그 구절은 나훔 서두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나오는 고백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 고백을 암시한 것처럼 나훔도 똑같이 합니다.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는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신의 복수는 인간의 복수와 다르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서 그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님은 보복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복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출애굽기 34장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므로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을 살려 두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시대에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들의 행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150년을 그들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결코 죄 있는 사람을 면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의 죄에 비추어, 죄 있는 자를 면죄할 수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하나님은 용사로서 그들에게 진군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장과의 이러한 연관성은 또한 12장 미가서에 이어 나훔서를 갖게 된 이유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미가서 마지막 부분으로 돌아가 보면,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행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들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 6절을 기초로 자기 백성을 다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가가 이르되 주와 같은 하나님이 누구뇨 자기 기업의 남은 자들의 죄악을 사하시며 죄과를 용서하시며 그분께서는 인자하심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것입니다.

주께서 옛적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주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며 아브라함에게 주의 헤세드를 베푸시리이다 그러므로 미가서와 나훔서의 연결에서 우리는 여기서 대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실제로 그들의 죄와 전쟁을 벌이시어 그들을 발로 밟아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행동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훔서에는 그 반대의 내용이 나옵니다. 니네베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복수심과 진노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봅니다.

그 결과 이제 하나님도 전쟁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는 전사로 다시 오셔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멸하고 그들과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장은 나훔의 메시지에 있어서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니네베 족속을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Themelios Journal 의 기사에서 Julie Woods는 이 책에 나열된 니네베의 구체적인 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장 9절과 11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니느웨에 내리실 심판은 결국 그들의 우상들에 대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계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이름이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 신들의 집에서 조각한 신상과 금속으로 만든 신상을 잘라 버리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앗수르 사람들을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앗수르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의 거짓 신들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그 구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비열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무덤을 마련하리라.” 그래서 세 번째 죄는 사악한 폭력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사악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3장 1절, 그 성읍은 피 흘리는 성읍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은 그들이 피를 흘린 것과 약탈한 것과 그들이 여러 나라에 행한 포학 때문이니라. 3장 1절에서 니느웨를 피흘림의 장소로 언급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초와 기초가 그들이 노아 언약을 위반한 것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라. 노아 언약은 인류에게 폭력과 유혈 사태를 억제할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문제는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 같은 제국과 군대가 그 유혈 사태를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4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들이 영원한 언약을 범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 그들은 그 법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이사야 26장 21절에서 주님은 궁극적으로 땅이 그 속에 있는 피를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것을 단순히 변명하실 수 없습니다. 피는 정의를 외치고 있다. 그분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바로잡아야 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에 따라 그들은 다른 나라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3장 4절에 그들은 교만과 교만을 행하였습니다. 3장 8절에 보면 그들은 계속 잔인하게 행했습니다.

3장 19절. 히브리 정경에서 수사학적 질문으로 끝나는 단 두 권의 책, 즉 요나와 나훔의 또 다른 평행선이 이 두 책이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요나서에서 수사학적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12만 명을 염려하셔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3.19의 수사적 질문은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앗수르와 니네베 사람들이 저지른 끊임없는 악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 연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선지자들의 글 전체에서 발견되며 특히 12장의 나훔과 오바댜에서 강조된 것입니다. 심판하려고 할 때, 그것은 주로 그들의 폭력이 아닙니다.

그들의 거짓 신만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의 근본 원인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주먹을 흔드는 인간의 오만과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내 생각에 신학적으로 우리는 창세기와 창세기 1-11장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인류의 반역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며 그들만의 규칙을 만들고 싶어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왜 받는지 결정하고 또한 하나님과 같은 결정을 내리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사는 사람이고 죽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라멕은 결혼에 관해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고 최초의 일부다처제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낳고, 이 용사들은 결혼과 성에 관한 하나님의 규칙을 과시하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쟁 종족을 세우려고 시도합니다.

창세기 10장,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 있는 이 강력한 사냥꾼이며 폭력을 통해 메소포타미아에 기반을 둔 제국을 건설할 후기 아시리아 왕들의 원형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을 쌓은 바벨탑은 대체 종교 체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1장에는 인간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 인간의 왕국을 세우는 일, 하나님의 얼굴에 주먹을 흔들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일이 나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그러한 오만함과 교만의 전형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것의 바탕이 되는 교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인류에게 최후의 심판이 내릴 때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위 틈에 들어가고 흙 속에 숨으십시오.

그 날에 사람의 교만한 눈이 낮아지고 사람의 교만한 것이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모든 교만한 자와 높은 자, 모든 교만한 자를 치시는 날이 있으리니 그가 낮아지리로다.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을 높였습니다.

사실, 이사야 6장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용어로, 내가 본즉 주께서 그 보좌에 앉으시고 높이 들린 것을 보니 그가 궁극적으로 높임을 받으시느니라. 그것은 여기서 인간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열방의 심판에 관해 말할 때 특히 그들의 교만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13장 11절, 내가 교만한 자의 오만을 멸하며 낮추며 포악한 자의 교만을 낮추리라. 19절, 바벨론은 또한 이런 종류의 인간 교만의 전형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은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인의 영화의 영광이니라 내가 그들을 멸할 때에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게 되리라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만한 바벨론 왕은 교만함을 표현합니다. 그분께서는 내가 구름의 가장 높은 곳 위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 자신을 가장 높은 자와 같이 만들 것이다.

스올로 내려와 이른 새벽의 새벽별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13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런 일을 한 것은 큰 나라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주변의 사람들, 더 작고 작은 나라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도 여기에 속합니다.

모든 손이 약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인류의 교만과 오만을 무너뜨리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마음은 녹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 이 사실을 짚어보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궁극적으로 앗수르로부터 구원하셨는지를 말할 때, 그 이유는 앗수르 왕의 오만함과 교만 때문입니다. 이사야 10장, 앗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타는 곳이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다. 그러나 앗시리아 왕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사악한 욕망을 이루고 싶어합니다. 앗수르 사령관이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왜 행복해야 하는지 상기시켜 줄 때, 여러분의 신들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히스기야가 앗수르 왕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 놓을 때 그가 지적하는 것 중 하나는 앗수르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오만하게 행동했으며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크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앗수르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근본적인 메시지의 일부입니다.

이제 나훔서의 역사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나훔서가 언제, 그리고 나훔의 메시지가 언제 전달되었는지에 대해 상당히 정확한 시간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훔서 3장 8절과 10절이 이집트 도시 테베가 함락된 지 얼마 후에 기록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훔이 이 도시를 언급할 것이기 때문에 테베를 점령하고 정복한 사람들은 아시리아 사람들 자신이었습니다. 나훔이 말하려는 것은 이집트인들이 적의 공격에 난공불락이고 침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도시인 테베에 당신이 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 궁극적으로 당신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책이 기록되었거나 나훔의 메시지가 BC 663년 이후에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가 기원전 612년 이전에 전달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는 바벨론 군대와 바벨론과 메대 사람들이 니느웨 성을 정복하고 무너뜨릴 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훔이 기원전 620년쯤에 이러한 메시지를 전파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종의 라운드 날짜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서 지금까지 앗수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기억해 봅시다. 티글라트-필레셀(Tiglath-Pileser)은 745년 신앗시리아 제국(Neo-

Assyrian Empire)을 설립합니다. 앗시리아는 고대 근동 지역의 지배적인 세력이 됩니다.

722년 북왕국은 수도 사마리아를 함락시켰다. 그들은 아시리아의 속주가 됩니다. 기원전 705~701년에 히스기야는 앗수르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산헤립은 그 땅을 침략하여 유다의 46개 성읍을 함락시켰고,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군대를 꺾지 않으셨다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켜 멸망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701년은 앗수르의 유다 나라 지배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앗수르 군대, 앗수르 제국, 앗수르 왕이 부활하여 그들이 다스리게 될 것이며 그들의 제국은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7세기 내내 유다를 지배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앗수르에는 매우 강력한 두 왕이 있었습니다.

에사르하돈(Esarhaddon)은 681년부터 669년까지 통치할 것이며, 그 다음 아슈르바니팔(Ashurbanipal)은 기원전 669년부터 627년까지 통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701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고 산헤립이 그의 군대를 잃은 후에도 그들은 고대 근동에서 계속해서 지배적인 세력이 될 것입니다.

Ashurbanipal은 이집트인들과 지속적인 전투를 벌일 예정입니다. 우리는 또한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인 므낫세 에살하돈의 통치 기간에 아시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를 족쇄로 묶습니다.

역대하 33장 11절부터 13절. 그들은 그를 포로로 삼아 다시 데려갈 것이지만 므낫세는 여호와께로 돌아옵니다. 그가 이렇게 끔찍하고 사악하고 무서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왕좌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앗수르는 이 기간 내내 유다를 계속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기원전 640년에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고, 이때는 앗시리아 제국이 쇠퇴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있습니다. 모든 제국에는 나뭇의 날이 있고 결국에는 무너지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요시야 시대에는 바벨론이 앗수르가 헤아려야 할, 헤아려야 할 강국이 될 것입니다. 요시야는 이것을 보면서 바벨론 제국의 부흥을 긍정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는 앗수르의 쇠퇴를 통해 유다의 독립을 다시 확립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 외에도 그의 바램은 북쪽에서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은 다음 그의 종교 개혁을 이전 북쪽 왕국 이스라엘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앗수르의 쇠퇴와 바벨론의 부상을 긍정적인 것으로 봅니다.

결국 요시야는 이 모든 일에 개입하여 이집트인들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아시리아인들을 돕기 위해 진군하는 것을 막으려 했기 때문에 기원전 609년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왕들에게 경고할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은 정치적인 해결책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요시야는 자신이 행한 위대한 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여기서 실수를 범합니다. 그는 기원전 609년에 아시리아인들을 돕기 위해 행진하던 이집트인들에 의해 전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므깃도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이에 대해 요시야와는 다른 관점을 취합니다. 그들은 아시리아 사람들을 돕고 아시리아 사람들을 지원하면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그들을 침략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훔이 말하는 심판과 하나님이 용사로 나가시는 일들은 바벨론 사람들과 그들의 왕과 그들의 지도자 나보폴라살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빌론은 신앗시리아 제국 시대 내내 앗시리아 측의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인들은 역사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대왕국과 제국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8세기 히스기야 시대에도 바빌론과 그들의 통치자 므로닥발라단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무너뜨릴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9장에는 바벨론에서 사절과 대표자들이 오는 구절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왕국의 보화를 보여 주었고 이사야는 그에 대해 그를 정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앓수르의 위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애쓰는 동시에 자신이 합당한 계약 파트너임을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보여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므로닥발라단은 바벨론의 독립을 완전하게 또는 완전히 재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627년과 626년에는 나보폴라사르가 바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은 바벨론을 통치하고 그곳을 계속 지배하기 위해 임명된 총독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626년에 아시리아가 바빌론의 총독으로 임명한 칸달라 누가 죽을 것입니다. 그 결과 칼데아의 찬탈자 나보폴라사르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독립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는 아시리아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몰아낼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바벨론 제국, 신바빌로니아 왕국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신바빌로니아 제국은 앓시리아를 대체할 것이며 유다가 상대해야 하는 블록에서 강패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앓수르가 그랬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폴라사르는 기원전 626년에 바빌론의 독립을 확립합니다.

그런 다음 뛰어난 군사 전략의 추가 조치가 메디아와 동맹 및 연합을 형성할 것입니다. 바빌로니아인과 메디아인의 동맹이 앓시리아인을 향해 진군할 때, 그들은 앓시리아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질 것입니다. 614년에 그들은 아슈르(Ashur) 도시를 점령할 예정이다.

612년에 그들은 니느웨 성을 점령하고 파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것이 나훔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609년에 남은 아시리아 군대는 하란에서 패배했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아시리아 제국의 종말이었습니다. 몇 년 후인 기원전 605년, 나보폴라사르의

아들 느부갓네살은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시리아에서 이집트인들을 물리치고 바빌로니아인들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바벨론은 고대 근동 지역의 지배 세력이 될 것입니다. 그는 그 승리 후에 진군 하여 첫 번째 포로 무리를 제거합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의 시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여 유다의 언약 불성실을 처벌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군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제국이 흥망성쇠하는 방식의 썰물과 흐름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의 배교가 앗시리아 제국주의의 촉매제가 된 것처럼, 부분적으로 바벨론이 권력을 잡는 촉매제가 된 것은 앗시리아인의 오만함, 폭력, 잔학행위였습니다. 고고학과 역사는 나훔이 여기서 니느웨의 멸망에 관해 예언한 것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확증해 줍니다.

이 시기의 바빌로니아 연대기에는 그 도시가 함락되어 큰 패배를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인 그는 전체 인구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많은 수감자들이 끌려갔습니다.

도시는 폐허가 된 언덕과 잔해 더미로 변했습니다. 그러므로 앗시리아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라들에게 행한 것과 똑같은 폭력이 그들의 머리에 내려졌습니다. 약 200년 후, 그 지역에 온 그리스 군인이 있는데 그는 이 지역의 이름으로 메스필라(Mespila) 라는 이름 이 사용된다는 말만 듣게 된다.

이제 남은 것은 교외 지역뿐이다. 도시 자체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이제 나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심판하시는 일곱 가지 말씀과 일곱 가지 말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의 첫 번째 신탁인 야훼는 적들을 물리치고 공격하러 나가는 전사입니다. 5절에 보면 “그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땅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그 앞에서 흔들리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용사로 나가실 때 하나님 앞에서 땅이 녹고 진동하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치러 나가시는데, 앗수르에게도 같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연설은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심판, 앗수르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며, 그것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나쁜 상황에 더 큰 폭력을 가하기 위해 이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해 이 폭력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더 큰 유익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사람들의 패배를 사용하여 자신의 백성을 구출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나라들을 주권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 백성을 구원하는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기 처음 두 예언을 읽으면서 알아차리는 것 중 하나는 나훔의 말이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에서 우리는 앗수르 도시의 침공에 대한 매우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예언적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군이 성벽을 뚫고 도시를 공격한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 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차가 거리를 미친 듯이 질주합니다. 그들은 광장을 통해 이리저리 돌진합니다.

그들은 햇불처럼 빛난다. 그들은 번개처럼 다트를 친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들이 뛰어다니면서 도시를 파괴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강문이 열리고 궁궐이 녹는다고 했습니다. 산헤립은 도시를 향해 수많은 운하와 저수지를 건설했습니다. 도시에는 쿠사강이 흐르고 있었지만 북쪽에는 댐과 운하,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제방을 열거나 댐을 열어서 물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적군이 도시를 공격하면 도시가 침수될 것입니다. 그들은 저수지가 도시를 침수하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강문이 열리고, 궁궐이 녹아 내리고, 군대에 더해 밀려드는 물에 도시가 압도당한다. 8절에 보면 니느웨는 물이 흘러가는 못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못의 물이 넘쳐 흘러가는 것과 같이 니느웨의 군대들이 그 성읍에서 도망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성을 수호하는 지휘관들이 이같이 말하되 그치라 부르짖으나 돌아오는 자가 없느니라 은을 약탈하고 금을 약탈하고 모든 보물과 보물의 보고가 끝이 없고 니네베 성은 멸망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이 다른 나라들에게 행한 것과 똑같은 일이 궁극적으로 그들에게도 닥칠 것입니다. 나훔서의 중심에 있는 네 번째 신탁에서 니느웨는 쓰러진 사자에 비유됩니다. 니네베 성은 사자굴과 같습니다.

앗수르 왕과 그의 군대는 밖으로 나온 큰 사자 같았습니다. 그들은 먹이를 찢었습니다. 그러나 사자 굴은 무너지고 이 큰 사자는 시체가 되어 거기 누워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위대함과 현재의 공포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3장 1절부터 7절에는 선지자가 니느웨에 닥칠 완전한 멸망을 다시 예언하는 화의 예언이 있습니다. 3장 3절에 보면, 기병들이 번쩍이는 칼과 번쩍이는 창을 들고 달려오는데, 죽인 자들과 시체가 무더기요, 시체들이 끝이 없도다.

그들은 그곳에 있는 시체들을 우연히 발견합니다. 시체들과 쌓여 있는 시체 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아시리아인들이 다른 도시들에 행한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일이 니네베 자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Ashurnasirpal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가 정복한 도시 중 하나인 많은 병사들을 산 채로 사로잡았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태워버렸습니다. 나는 그들로부터 귀중한 공물을 가져갔습니다.

나는 문 앞에 살아있는 사람들과 머리들을 쌓아올렸다. 나는 성문 앞에 700명의 군인을 말뚝에 세웠습니다. 나는 도시를 세우고, 파괴하고, 폐허가 된 언덕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사춘기 소년 소녀들을 불태웠다. 이제 같은 일이 니네베에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니스웨를 매춘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와 권력을 통해 다른 나라들을 유혹하고 유인하여 그들과 동맹을 맺거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나라는 그 유혹을 이용하여 그 나라들을 약탈하고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발가벗기고 그 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3장 8절부터 13절까지에서 니스웨에 대한 여섯 번째 신탁은 니스웨를 애굽의 도시 테베에 비유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도시는 아시리아 사람들이 직접 점령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는 난공불락이고 침공할 수 없는 안전한 도시였습니다.

그것은 나일 강의 굽이에 있는 매우 안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도시를 실제로 보호하는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은 아시리아인들이 그것을 점령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테베에 행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 이제 니스웨 시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무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신탁에서 우리는 니스웨의 멸망과 그 도시의 붕괴와 파괴에 대해 애도합니다. 내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이 마지막 구절이 도시의 파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쌓이고 겹쳐지는 모든 은유입니다. 3장 13절에 보면 성을 지키는 여자들도 여자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합니다. 12절에 보면 성벽과 산성, 니느웨 성이 무화과나무 같게 되었느니라. 그들의 열매는 따기 위해 익었고 그들은 나무를 흔들 때 흔들리고 바벨론 사람들의 입에 간단하고 쉽게 떨어질 것입니다.

3장 11절, 그들의 용사들은 술취한 자 같으니 그들이 겪는 파괴적인 멸망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리라. 15절, 불이 너를 삼키고 칼이 너를 자르리라. 메뚜기 같이 너희를 먹을 것이며 너희 대적들이 메뚜기 같이 많아질 것이며

아모스서에 사용된 불과 메뚜기와 사자의 형상은 현재 나훔에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닥칠 멸망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사용되는 형상과 동일합니다. 또한 이 메뚜기의 이미지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16절에서 말하기를 주께서 하늘의 별보다 상인을 더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네 상인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그들이 메뚜기 떼와 같이 되리라.

그들은 날개를 펴고 날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적이 메뚜기처럼 먹고 멸망시키게 될 것입니다. 니느웨에 있는 많은 백성과 상인과 용사는 메뚜기 떼 같아서 성벽 위로 올라 날아가리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내리실 심판이라는 강력한 이미지와 함께 일곱 가지 연설로 묘사됩니다. 우리는 이 책에 나오는 폭력과 씨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악한 나라들과 악한 군대와 그들의 폭력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의 신비와 씨름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책에서 상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될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나라들이 노아 언약을 위반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수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아시리아에 일어난 일과 니느웨 도시에 일어난 일이 궁극적으로 역사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모든 적들과 모든 제국과 국가들에게 내려질 심판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구절에는 경고뿐만 아니라 역사 교훈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폭력과 유혈 사태 속에서도 희망적이고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심판과 폭력의 시대 뒤에는 구원과 그분의 백성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나훔의 메시지에도 심판과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훔서의 의미 중 일부를 더 살펴보고 그것을 오바댜서와 연결하는 다음 비디오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열국과 그의 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12장에 대한 강의 시리즈의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강의 22, 미가 6:8 및 나훔입니다.